

유가하락의 원인 및 향후 전망

* 지난 2.6일 BNP Paribas가 주최한 오찬 간담회(Lunch Discussion)에서 Harry Tchilingurian(Global Head of Commodity Markets Strategy)의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·정리한 것임

1 유가하락 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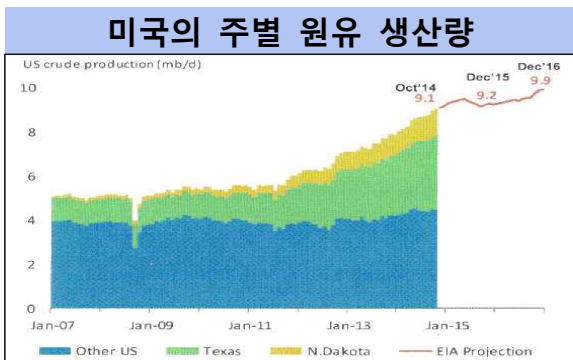
□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급격한 유가하락은 수요* 보다는 ① 미국의 원유 생산량 확대 및 ②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공급량 조절 기능 약화 등 주로 공급 측면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

* 지난 2008년의 유가급락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 수요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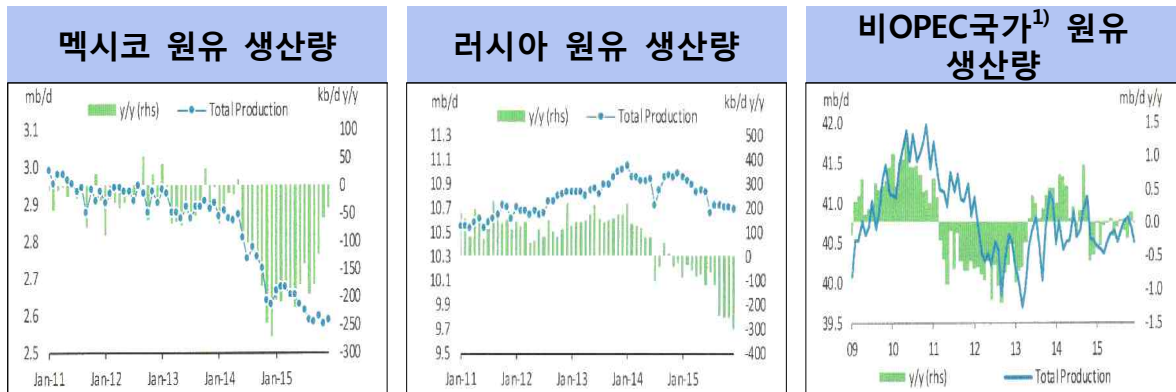


① 미국의 원유 생산량 확대

□ Texas 및 North Dakota 등 주로 셰일원유를 대량 생산하는 주(州)들의 생산량 확대에 힘입어 미국의 원유 공급규모가 큰 폭 증가



- 반면, 전통적 채굴방식에 의존하는 러시아 및 멕시코 등 여타 비OPEC 국가(미국 및 캐나다 제외)의 원유 생산규모는 유가하락의 부정적 영향으로 소폭 감소



주 : 1) 미국 및 캐나다 제외

②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공급량 조절 기능 약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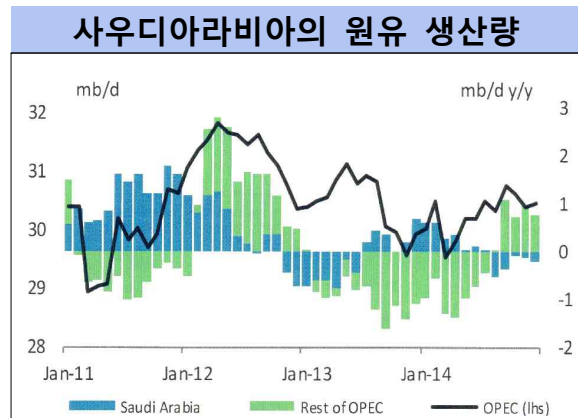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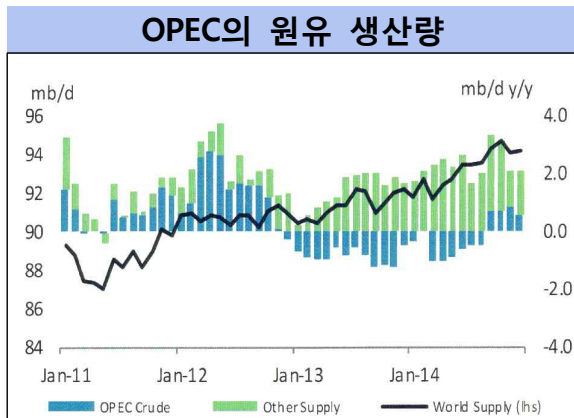
- 과거에는 OPEC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여타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에 맞추어 생산규모를 적의 조절함으로써 전체적인 원유 공급량을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에는 여타 OPEC국가들의 큰 폭 증산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산하지 않고 있음

- 일각에서는 원유 공급량을 조절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구심적 역할이 약화된 배경을 두고 유가하락을 이용하여 미국의 셰일원유 생산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음

— 미국의 셰일원유 생산기업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들과 달리 기술수준이 상당하고 대응능력도 높아 유가가 반등할 경우 조기에 대규모로 증산할 수 있는 등 유가하락의 부정적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편

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 변화는 러시아, 베네수엘라 및 브라질 등 전통적인 산유국*의 생산량과 설비투자의 축소를 유도하여 시장점유율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

* 전통적인 채굴방식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은 미국이 셰일원유 채굴기술을 이전해주기를 바라지만 미국정부가 중국 등 타국 기업과의 셰일원유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(Joint Venture)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데다 미국의 셰일원유 생산업체들도 현재의 독점적 기술지위를 당분간 향유하기를 원하고 있어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는 상황



2 향후 유가 전망

- 향후 유가는 미국 등의 원유 생산량 증가 속도 감소 및 유가하락에 따른 비OECD 국가들의 원유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금년 2/4분기 이후 반등하여 연말에는 배럴당 \$67(Brent유 기준)까지 상승할 가능성*

* 2015.1/4분기말 \$55 → 2/4분기말 \$55 → 3/4분기말 \$63 → 4/4분기말 67\$

- 다만,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 심화* 등이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

* 원유는 대부분 미 달러화로 거래되어 미 달러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 자국 통화표시 원유 수입단가도 상승하여 수요가 위축

2015년도 원유 수요량 전망

